

buddhanews.com

모든 것 한마음 속에서 나온 것이니 거기다 맡겨놓아라

25면에서 계속

운, 악업 선업이 들어 있는 마음의 배낭을 짊어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짊어지고 나왔으니 뭘입니까. 미래는 오지 않아서 없다고 했지만 바로 미래도 여기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부터 물질적으로 나오니까 정신적외 물질적외 그 깊은 사연들은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당이니 지옥이니 하는 것도 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50% 정신세계를 추구하지 않고 부처님의 본뜻을 받지 않고 오직 그렇게 물질세계에서만 떠돌고 있습니다. 학, 육식, 야만, 야성, 야 집이 모두를 한꺼번에 짊어진 채 거기서 나오는 대로, 배낭 속에서 나오는 대로 온통 성질을 내고,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온통 싸우고 분통을 내고 또는 별고 불고, 온통 야만들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 수많은 악업 선업들이 나오기 때문인데, 그게 무엇인가? 영계성, 유전성, 세관성, 업보성, 인과성이 수없이 거기에 들어서, 팔족 속에서 팔족 방울이 떨어오르듯이 온통 나오는게, 그 방울 방울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배낭 속에서 바로 여러분이 산 것만큼, 행한 것만큼, 바로 자기가 저지른 것만큼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바로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짊어지고 나왔고, 짊어지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것을 어떻게, 누구의 탓을 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에 내가 짊어지고 나온 것이니까 원망입니다. 모든 걸 내 탓으로 돌려주세요. 바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것이고 그게 전부입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것도 직선적으로, 직각적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지요. '내가, 공한 이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는 게 하나요,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점프해서 뛰어넘어서 그냥 '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지수화풍을 바람으로 해서 생김새가 생겼고 그래서 이렇게 진화되어 나왔구나! 그랬으니까 그 나온 거는 나온 거로써 무조건 놓고 가야겠구나!' 하는 거죠. 즉 '내가 어디서 왔는가?' 하는 거하고 바로 맡겨 놓고 가는 거, 이 두 가지가 정신적외 지름길이 될 수 있으며 그런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또 붙이고 또 붙인다면 그건 영원히 참자기의 그림자도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맞도 못 볼 것입니다. 그 맞을 안아도 남한테 일러 주지 못하는 범인네 하물며 맞을 모르고 내 몸 하나 이끌어 가지 못할대서야 어찌 불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정신적외로 치달려 되는 교차로에 놓여 있는데 물질적외 50%만 가지고 살기에 어렵습니다. 지금 천체물리학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지리학이나 천문학이나 하고 무수히 떠

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죠. 그럼 요거부터 말씀드릴까요? 미국의 하버드대학 박사가 이런 말을 하더군요. 교수님들하고 전부 같이 모여 있을 때입니다. "스님! 지금 우리는 우주에서 천파를 통해서 외계인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을까 해서 아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전부당면부당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무전전화를 내 마음속에서부터 놓아 남한테 무전전화도 하고 무전전화도 받을 수 있지만 나를 떠나서는 그 통로가 막혀 있다. 모두 각자 나에게 통로가 있으니까 그 통로를 바로 띄워 주어서 물리가 터지고 모든 게 파야 된다면 내가 두루 망할 것이고 볼 것이고, 두루 들을 것이고 끝나잖나 만날 것이고, 내가 결정지을 것이고 내가 안쪽으로 통산하는 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부처님이라는 그 이름 없는 부처님 그 자체는 바로 진드기 반 하나도 내 반 아닌 게 없기 때문에 바로 평범이라 했고, 모든 손도 내 손 아님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바로 평순이라고 했다. 부처님께서 '어느 곳에 내 손 아님이 없고 내

습나. 미가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 불그릇을 보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이것을 갖다 먹을 수 없는 형편이라면 보나마나니까요. 가고 온다 하더라도 아무 실권이 없다면 가고 와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들어도 행하지 못하면, 진심된 행을 못한다면 한데로 떨어지고 그건 소용없는 거니까요. 과거를 안다 하더라도 아는 것만으로는 도가 아니죠. 그러나 과거를 알아서 현재의 그 다섯 가지를 굴리면서 모든 것을 실행하고 자비로써 한마음이 돼서 발전시키고 개혁해 나갈 수 있다면 바로 행이 없이 해 나가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 지금 언어로 말하자면 속명봉은 컴퓨터, 타살봉은 탐지기, 산책봉은 책시달리, 천인봉은 천체망원경, 천이봉은 천체무전통신기인데 이 다섯 가지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재가 하고 싶어서, 자랄 삼아 하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마디의 뜻이 열 가지 백 가지의 뜻으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진봉이라는 것이 뭘 뜻하는가? 지금 사해

천수는 중간에서 차를 잘 이끌어 가지고 가면서 고장이 났으면 고쳐서 가고, 한데로 빠졌으면 다시 돌려서 빠 가지고 견져서 가고, 또 위로는 기름을 넣고 어떻게 하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 마음이 여러분 몸을 다스리면서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 나오는 대로 다 제압이라고 하지 마시고 좋은 거든 나쁜 거든 모든 것은 다, 좋은 거는 감사하게 놓고 나쁜 것은 '아하, 나쁜 것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좋은 것도 거기서 나올 수 있어.' 하고 거기다 놓고 이렇게 붙여갈 수 있다면 바로 어떤 간 밝은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올 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50% 물질세계에 붙어 붙어서 요만큼도 여유가 없어 남아 있는 소리 하면 화를 낼지 내고 안으로 굴릴 줄도 모릅니다.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의학적외로 지금 정신세계, 즉 말하자면 무심세계의 의학이 되어 가는 거지 학술적인 이론의 의학이 되어서는 바로 30%, 35%밖에 해를 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65%는 누가 감당을 하나? 여러분이 그것을 감당하고 나가야죠. 맡을 하다가

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는 생각에 착이 락 붙어차서, 아픈 것도 아픈 게 붙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프다 뭐다 하나씩 더 아플 수밖에 없죠. 웬 줄 아십니까? 몸속의 악업 선업들이 원수 같으려고 나오기도 하고, 인연에 따라서 모든 걸 같으려고 요거 나오고 조거 나오고, 때를 찾아서 잘 나오는 것을 아, 그것을 모르고 지푸 속는단 법입니다. '그것도 그놈 속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속명봉 컴퓨터에 입력이 돼 가지고 나오는 거니까 내가 요즘의 거를, 나오는 거를 컴퓨터에다 다시 입력을 해 넣어 아겠다.' 왜 요런 생각을 못하십니까? 그래서 컴퓨터에다 다시 입력을 해 놓으면 앞서 입력했던 게 아주 없어지는 법입니다.

그러니 과거의 그 영모라는 게 어디 붙을 자리가 있습니까? 그것을 여러분이 더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일 초에 몇 바퀴씩 돌아갑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부처님께서 '색이 공이고 공이 색이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고정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은 많지만 그건 이름대로 이름일 뿐입니다. 아바지가 됐다가 금방 남편이 됐다가, 금방 자식이 됐다가 금방 형님이 됐다가, 아우가 됐다가 금방 사위가 됐다가 이렇게 많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금방 어떤 것이 됐을 때에 나라고 믿을하시겠습니까? 여자와 남자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나라는 걸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데 여러분은 나라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서, 팔족 그릇에서 팔족 굴듯, 팔족 방울 나오듯 그냥 나오는 걸 가지고, 제 속에서 팔족 나오는 걸 가지고 꼭 초상 갖이나 하고, 만 때서 무슨 세균이 붙어서 병에 걸렸다고 하고 또 만 때서 마가 들어서, 가난이 들어서, 병고도 들어서 어떻게 하시니 여러분은 힘으로 나같은 어리석습니다. 허허, 나같은...

나도 사실은 못나고 못나서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무지렁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나한테 왜 이런 길을 걷게 했나?' 하는 생각에 하늘을 쳐다보고 악을 쓰면서 영영 울기도 했습니다. 그때 그때 '사람의 뜻구명은 내리줄 했는데 소 쿠투명은 치졸했기 때문에 만지가 깨어서 막혔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뭘 그려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는 빠져서, 그 못나 생각을 다시 한 번 돌려서 이렇게 생각했죠. '못났으면 못난 대로고 잘났으면 잘난 대로고 크면 큰 대로고 작으면 작은 대로지, 나하고 무슨 상관에 있을까?' 하고 말합니다.

(다음 호에 계속)

☞ 위 법문은 1991년 9월 1일 국내자원법회에서 설립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 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가 해 놓고 자기가 짊어지고 나온 것인데 누구를 탓하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은 없는 데가 없고 내가 없는 자리가 없다.'고 어떤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당신네들 마음속에 통로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그 마음속의 통로를 안다면 벽도 붓장도 없어서, 자기 마음으로 참살을 만들어 놓고 그 속에 갇혀 있던 자기가 참살도 없었던 것을 알고 감옥에서 딱 떨어져 나오니 우주, 삼라만상 대천세계를 두루 볼 것이다.' 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마저도, 두루 보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것도 도가 아니라, 즉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음의 귀로 듣는 것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또 가고 올 것이 없고 온다,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행다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난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님 여러분께 죄송합니다마는 제 의견으로는 그렇다 이겁니다. 제가 더 잘 알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제 의견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생활 속에서 그것을 체험하고 실험하고 했더니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남의 속을 헐기 들여다보고 과거 현재 미래까지 알아도 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과거를 다 안다고 하더라도 도가 아니라고 그랬

발로 레이더망이라고 해도 됩니다. 레이더망은 이 대기권에서 벗어나서 안에서 나오는 거,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 그것을 무전통신기로서 다 통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해야 할 문제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 한다면 누진봉으로 비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섯 가지를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조금 맛만 봤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전부 알았다' 이란다면 별책 그건 그른 거예요. 내가 부처를 이루겠다고 해도 그른 거고 안 이루겠다고 해도 그른 겁니다. 그대로 실행하면서 딱 쪽이 걸여가는 복안! 복안! 복안! 남의 팔을 잡고 원망하고 아러지 받고 모든 거를 내 탓으로 돌려서 풀려서 지는 믿음으로 거기에 맡겨 놓아야 합니다. 모든 것은 한데 합쳐진 한마음의 그 속에서 나오는 거니 한마음으로 해결할 수 있기에, 어떤 치열이라는 그런 속담의 말도 뜻있어, 모든 것은 거기에 맡겨 놓는 겁니다. 모든 것은 거기서 하는 것이니 나는 시자일 뿐입니다.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이 몸을 움직여 리게 하는 거지, 몸이 마음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 차를 타고 오신 분이 많겠죠. 운

도 이렇게 지푸 셉니다. 편 데로 나가거든요. 문이 하도 많아서요. 허허... 문이 많아서 문이 없고 문이 없어서 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이 없어서 문이 없고 문이 없어서 문이 많았습니다.

이러니 여러분이 그 뜻을, 우리 부처님의 필수 의 뜻을 잘 아셔야 할 겁니다. 고깃덩어리를 믿을 수도 없고 이름을 믿을 수도 없고 형상을 믿을 수도 없고 허공을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빠져서 마음 아파도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듯이 아픈 것도 누가 대신 아파 줄 수도 없고 먹는 거 통누는 거 자는 거 죽는 거, 모두 대신 해 줄 수 없습니다. 대신 해 줄 수 있는 것도 없었지만 믿습니다. 여러분은 50%의 그 물질적외에 아주 그냥 태워서 조금도 용납이 없고 용서할 줄 모르고, 또는 남의 뜻을 하고 남을 원망을 하고, 내 종교 네 종교만 따지고 이겁니다. 한그릇 안에서 사는 다 같은 구덩이가 더 참았으면 얼마나 더 참았겠습니까, 네? 그 행아리 속에서 벗어 내려오는 안 하고 항아리 속에서 네 집 내 집 하고 붙었다 싸우고 있으나... 이런 소리가 나오게끔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냥 졸졸이 졸졸이 물질적외에 붙어서 사니 여러분이 이 몸에 착을 뒀 가지고, 내가 공해

삶은 고통이 아니다

10,000원 A5/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통이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룸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다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물상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속의 불법을 선행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번역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계승·선학의 집대성
- ▶ 신행요전(법어집) 기본적인 예불 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문 금강경(독송문)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문 천수경 (한글/영어)